“널 보러 왔어” 애끓는 외침에도…바다는 말이 없었다

르 포 세월호 10주기 선상 추모식

안산서 새벽길 달려온 유족들
맹골수도서 눈물 속의 헌화
10년 지켜왔던 부표도 녹슬어
“제발 꿈에라도 나와줬으면”
여전한 그리움에 오열 토해내

“제발 아빠 목소리 좀 들어다오. 아빠가 널 보러 왔어.”, “아들, 엄마 꿈에 한 번만 나와주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10년째 진도 맹골수도 바다에서 스러지고 있다. 격한 오열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10주기 세월호 선상추모식이 열린 16일 오전 7시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경전용부두. 안산에서 5시간여 새벽길을 달려 목포를 찾은 유가족들은 다시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1년에 단 하루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지만 검은 옷차림을 한 유족들은 가슴과 허리춤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 탑승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10년전 ‘그날’은 오늘, 현재의 아픔이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간다며 나간 아이들이 참사로 선박이 기울어도 ‘걱정말라고’ 전화를 한 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도저히 슬픔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구조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속에 갇힌 것만 생각하면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세월호 유가족 37명을 비롯한 4·16재단, 안산온마음센터 관계자 11명 등 총 86명은 이날 해경 경비함정 3015호(3000t급)에 탑승해 사고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로 출항했다.

3시간여 동안 88여km(55마일)을 항해 후 멀리 세월호 사고 해역을 알리는 ‘세월’이라는 두글자가 적힌 노란색 부표가 보이자 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덤덤하게 버티던 가족들도 10년을 한자리에서 지키던 부표조차 곳곳에 녹이 슨 모습을 보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다.

추모식을 알리는 먹먹한 뱃고동 소리가 세 차례 울리자,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다시 밀려왔다.

선상에서 250명의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하자, 그리웠던 이름을 들은 부모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묵념을 마친 이들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하나 둘 국화꽃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이호진군의 아버지 용기씨는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이사간지 10년이 되는 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맞이하니 가슴이 더욱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깊은 바다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외쳤다.

진도 앞 바다에서 외동딸(단원고 2학년 1반 고(故) 우소영양)을 잃은 우종희씨도 10년전 마지막 딸의 목소리를 회상하며 오열했다.

우씨는 “딸에게서 ‘배가 이상하다. 기울고 있다’는 전화가 왔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그게 마지막 목소리였다”며 10년 전을 회상했다.

부모들은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향해 “아들, 제발 엄마 꿈에 한번만 나와줘. 제발. 너무 보고싶어”라며 애끓는 심정을 토해냈다.

부모들은 10년의 세월동안 같은 아픔을 공유해왔던터라 오열하면서도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일부 부모는 조화를 바다에 던지면 아이들을 영영 잃게 될까봐 헌화를 주저했다. 결국 한 학부모는 뱃머리가 사고해역을 벗어날 때까지 국화꽃을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유족들은 이후 세월호 선체가 보존돼 있는 목포 신항으로 자리를 옮겨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고 오후 4시가 넘어 다시 안산으로 돌아갔다.

/진도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진도군 맹골수도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

“우린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 있어…이젠 4월 16일 잊고 싶다”

딸 잃은 아빠 김병권씨 10년의 소회

4월 소리없이 빨리 지나갔으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10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세월호 선체에 갇혀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고(故) 김빛나라양 아버지 병권씨의 울먹임이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초대 위원장인 김씨는 “이제는 4월 16일을 잊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나’는 이유를 듣지 못해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세월호에 아이들과 함께 갇혀있다”고 말했다.

10년전 수학여행길에 나선 딸의 전화 한 통화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는 수년동안 전국을 누비며 딸의 죽음의 책임자를 밝혀 내고 싶어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2년전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 오늘도 현장에

16일 오전 치러진 선상 추모식에 참가한 김병권씨가 10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면 딸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생각나 억장이 무너지는데 또 올 수 밖에 없다”며 “부모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당시를 회상하면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고 말했다. 사고 소식에 한달음에 진도로 달려갔지만 잔잔한 바다가 배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고, 아이들을 구조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해경은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 나를 비롯한 부모들이 ‘제발 가서 구해달라고, 아직 애가 저기 있다고’ 악을 쓰고 난리를 쳐도 뭐 하는 게 없었다. 그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매일 팽목항을 지키며 딸을 기다렸고, 4일 후 겨우 뭍으로 나온 딸을 봤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게만 진행됐고, 그동안 유가족들끼리도 서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그때서야 유가족들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일주일 전에도 유가족 한 분이 돌아가셨다. 더이상 버티지 못한 가족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올해 말 4·16생명안전공원이 착공되고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는대로 해외로 떠날 것”이라는 그는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에서 사는 것이 매일 고통”이라고 절규했다.

/진도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

세월호 교훈 잊었나…해양조난사고 꾸준히 증가

작년 3792건…10년전보다 2.6배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해양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해해경 등에 따르면 해경에 접수된 전국 해양조난사고 건수는 2014년 1418건에서 2023년 3792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전남·북을 담당하는 서해해경에 접수된 건수는 2014년 430건에서 2023년 1373건(잠정)으로 3.1배 뛰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목포 627척, 여수 301척, 완도 232척의 선박이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전남·북 해역에서 발생한 ‘6대 해양 사고’는 422건으로 각각 ‘충돌’ 111건, ‘침수’ 112건, ‘좌초’ 55건, ‘화재’ 74건, ‘전복’ 20건, ‘침몰’ 10건 등이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선박의 사고까지 포함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30건 발생한 선박해양 사고 건수가 지난해 2.3배(3092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는 2021년 2720건,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으로 증가세다.

이 중 목포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4년 15건에서 2023년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여수항·광양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2014년 6건에서 2023년 56건으로 늘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